

임신 대리외와 존엄의 문제, 실험적 서사로 다뤄

리뷰 - ACC, SF연극 '대리된 존엄'

출산·과학·윤리의식 등 이슈 제기 미래 어느 시점의 우리 사회 모습

금전적 이득을 보장받고 임신과 출산을 대리하는 행위는 과연 존엄을 훼손시키는 일인가?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다주는 삶의 편리는 윤리의식과 충돌할까?

지난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이강현) 예술극장에서 공연된 '대리된 존엄'은 출산과 관련 다양한 생각을 하게 했다. 대리 출산과 관련 어디까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타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다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

사실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과 맞물린 출산 문제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이자 국가적 화두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법 테두리 밖 출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출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은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대리모를 주제로 한 예술작품은 다양한 장르에서 다뤄져왔다. 지금까지는 생명 윤리문제, 아이의 정체성 문제 등이 일반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이번 작품 '대리된 존엄'은 대리모 산업이 일반화된 미래 사회를 전제로 대리모 출산에 대한 윤리 논란보다 인간의 존엄도 대리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연극은 ACC 최초 SF 첫 번째 시리즈로 기획됐으며 'ACC 공연 레지던시 사업'을 토대로 진행됐

다. 문정연 작가가 글을 썼고 최여림 연출가가 연출을 맡았다.

예술적 상상력을 극대화한 SF연극이라 다소 난해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스토리 라인이 분명했다. 또한 흡입력 있는 대사배우들의 자연스러운 연기, 인물들 변신을 끌어내는 연출 등이 맞물려 주제의식이 깊이있게 구현되었다.

가장 낮은 등급인 8구역 출신인 엘리스는 가족들을 돕기 위해 국가 최고기관인 왕립대리모센터에 입소한다. 그녀는 부모의 직업, 경제력 등에서 최하 등급 구역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다. 8구역 출신 가운데는 대리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발탁되는 것은 어렵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경제력 외에도 자신의 외모, 성격, 성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평가받기 때문이다.

엘리스는 특유의 성실성과 눈에 띄는 외모로 무혈왕국이 운영하는 왕립대리모센터에 입소한다. 그녀는 선진국 전문직 부부에게 자신이 선택됐다는 사실에 기쁨과 함께 자부심을 느낀다.

무혈왕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왕립대리모센터를 운영할 만큼 중요한 시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무혈왕국에는 사설대리모센터도 있으며 인공자궁도 하나의 출산일 만큼 선택지가 자유롭다. 그러나 경제력과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대리모 계급도 분류된다. 더욱이 인공자궁과 대리모가 성행하는 선진국 상류층사회에서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긴다는 내용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작품을 보다 보면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고 주인공은 무대 위에 던져질 뿐이다'라는 셰익스피어 명언이 환기된다. 무대 위에 오르는 인물은 저마다 인



지난 1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 무대에 오른 SF연극 '대리된 존엄'은 출산과 관련 다양한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다. <ACC 제공>

생을 살며 대리 출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표출한다.

작품은 모두 7명 배우가 40여 개 배역을 담당한다. 한 배우가 대여섯 개 배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만만찮은 내공이 없이는 소화하기 힘들 것 같다. 전체적으로 극을 이끌어가는 지문리더가 군데군데 진행 방향을 설명하며, 그 또한 다른 배역을 소화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공연은 거의 무대가 바뀌지 않은 채 지문과 간단한 소품, 연기만으로 110분가량 진행됐다.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회에서 부자들은 취향에 맞게 대리모를 선택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삶은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감정과 부딪히며 연극이라는 작품에 스며든다.

아기와 교감하며 임신 상태를 보내던 엘리스는 무사히 출산하게 된다. 선진국 부부에게 아기를 보내기 직전, 대리모 산업을 반대하는 이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왕립센터는 큰 혼란에 휩싸인다.

작품은 오늘날 출산을 저하와 결혼 기피 등으로 맞물린 사회 풍조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임신 기간이 경력 단절이 되는 사회, 모든 것이 자본

으로 계수되는 사회에서 이번 작품 '대리된 존엄'은 미래 어느 시점에 닥칠지 모를 우리 사회의 모습을 선행해서 그리고 있는 것 같다.

한편 최여림 연출가는 "이 작품은 대리모 시장을 고발하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전달하는 것에 본질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사회적 욕망이 개인을 집어삼키는 양상이 더욱 거세어지는 않을까, '자신의 삶의 모양을 스스로 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더 쉬워질까'와 같은 질문들을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채수정 소리단의 판소리, 판치는 세상! '뿌리 깊은 소리'

국립남도국악원, 8월 3일 진악당

전통예술에는 뿌리 깊은 소리들이 많다. 판소리, 산조 등은 물론 절에서 재(齋)를 올릴 때 부르는 '법패(梵唄)'나 '진도씻김굿' 등은 전통의 미와 특질을 간직한 우리 소리들이다.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이 채수정 소리단 초청공연 '뿌리 깊은 소리'를 오는 8월 3일 국악원 진악당에서 선보인다. '판소리, 판치는 세상'이라는 부제처럼 판소리 주요 대목들을 비롯해 법패, 진도씻김굿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천상의 소리'라고도 불리는 '법패' 공연으로 막을 연다. '범음(梵音)', '인도(印喙)소리 또는 '어산(魚山)'으로도 불리며 기곡, 판소리와 함께 한국 3대 성악으로 손꼽히는 장르다.

3세기경에 발생한 '법패'는 일정한 장단과 화성이 없는 단선율로 이뤄졌다. 합창이나 독창으로 모두 불리며 법패만을 전문적으로 부르는 스님인 법패승이 존재할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르다.

이어 조조 군의 전선과 장비가 불타는 적벽대전의 모습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적벽가 중 '불 지르는 대목'이 펼쳐진다. 조조의 도주 모습이 해학적으로



'채수정 소리단'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표현했으며 자진모리부터 휘모리장단으로 연계되는 짜임새 있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이밖에 흥보가 중 '박타령'과 춘향가 중 '이별가' 등도 레퍼토리에 있다.

끝으로 불교 천도재에서 행하는 관육 의식처럼 망자의 한을 풀어내는 '채정례본 진도씻김굿'으로 막을 내린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국악인 채수정과 그 제자들로 이뤄진 예술단체 '채수정 소리단' 초청 공연을 준비했다"며 "판소리를 바탕으로 민요, 창극 등을 탐구해 온 이들이 들려주는 소리가 관객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토요상설 셔틀버스 무료 운행.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창작지원 공모전 21일까지 접수

지난 1996년 '신세계미술제-주제공모전'으로 시작된 광주신세계미술제는 지난 2002년 제5회부터 '광주신세계미술제 창작지원 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지 24회 미술제를 진행했다.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공모전이 오는 21일까지 열린다. (희망자는 광주신세계미술제 홈페이지

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대상 상금을 500만원 추가 증액해 총 상금 2000만원(상금, 전시지원금 포함)으로 상향했다. 신진작가 총상금도 1000만원(상금, 전시지원금 포함)을 지원해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종 수상자는 8월 말부터 진행되는 '제25회 광주신세계미술제 1차 선정작가전'을 통해 9월 초 발표 예정이다.

백지홍 큐레이터는 "그동안 광주신세계미술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적잖은 성과를 이뤄왔다"며 "미술계가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문화와 미술계의 네트워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미술환경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지난해 진행했던 문화예술작은도서관 강좌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문화예술작은도서관서 즐기는 풍성한 강연

하반기 예술강좌...24~25일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 첫 강의

미술 감상, 자연 관찰 일기, 스마트폰 활용하기- 문화예술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 문화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펼쳐왔다. 문학, 철학,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강연은 도서관이 상정하는 작지만 내실있는 문화예술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작은도서관(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이 하반기(7, 9, 11월) 예술, 자연 등을 모티브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의 주제당 매월 두 강좌씩, 15명 선착순 마감.

먼저 7월에는 그림 속 모델이었다가 현실에서 화가가 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예술 강좌가 펼쳐진다. 첫 강연은 오는 24일, 25일은 문희영 예술공간 집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고전부터 현대 작품을 감상하는 '미술을 만나는 특별한 마음' (24일), 미술가들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는 '반 고흐와 수잔 발라동' (25일)이 예정돼 있다.

9월에는 김옥진 마음놀이 대표가 '자연 관찰 일기'를 모티브로 강의를 진행한다. 25일은 '일상의 변화를 느끼는 삶'을, 26일은 '내 삶을 더 깊게 보는 것'을 주제로 자연을 드로잉하는 시간이다. 비인간 생명체들의 다채로운 모습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성장과 아울러 실습 위주로 채워진다.

일상의 친숙한 사물인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도 펼쳐진다. 마지막 11월 12일, 14일 강좌는 디지털 강사 김미환의 참여형 수업으로 '스마트폰 활용하기', '키오스크 활용하기'가 이어진다. 각각 시간은 스마트폰 기본 조작 및 QR코드 활용, 교육용 키오스크 체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강좌로 구성돼 있다.

김예원 문화예술교육팀 담당자는 "작지만 내실있게 진행되는 도서관의 예술 및 실습, 실용 강좌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무료 강의, 문화예술 작은도서관 유선접수.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